

개신교인의 의식조사를 통해 알아 본 경제윤리와 혐오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이봉석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적 혐오현상에 대한 기독교 윤리 안팎의 정치-경제적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적 혐오현상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의 선행연구
2. 한국적 혐오현상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독교 밖의 연구들

III. 혐오와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계에 대한 의식조사

1. 자료
2. 측정
3. 분석처리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개신교인의 경제윤리에 대한 태도
2. 종교적 영향력과 '개신교 경제윤리'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¹³⁴
3. 개신교인의 경제윤리와 한국적 혐오현상에 대한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04>

* 본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977

•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Ethics and Disgust
Examined through an Attitude Survey on Protestants

Lee, Bong-suk (Lecturer,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whether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is hidden in the attitudes and consciousness of Korean Protestants toward phobia and analyzed whether Christian economic ethics affected this phenomenon of phobias in Korea. To objectively determine the consciousness of Protestants about phobia,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Survey on the Civic Consciousnes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Phobia in the Korean Society" by conducted by Hankook Research from December 26, 2018 to January 14,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as potential victims facing employment anxiety and risk in the society with a neoliberal economic system, Protestants were showing phobia in the form of exclusion and hostility toward refugees and homosexual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gerontophobia was not due to economic reasons. This showed that the attitudes and consciousness of Protestants about phobia are concentrated on homosexuals and refugees. In terms of economic ethic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oving that Protestants had specific phobia toward homosexuals and refugees rather than being the main agent of all kinds of phobia. By providing proper education on puritanical economic ethics, the phenomenon of phobia toward homosexuals and refugees will be alleviated.

Key words: Korean Disgust, Homophobia, Refugee-phobia, New Dogmatization, Affective Economies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난민혐오, 노인혐오 등 혐오현상들이 확대되고 있고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정치이념의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된 특정 집단이 사회적으로 다수가 아닌 소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페스트와 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적 혐오현상이 개신교 교회 안에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소수자들의 ‘다름’에 대한 인정보다는 배제의 원칙이 개신교 교회들의 입장으로 정리되면서 교회가 혐오의 주체로 나선 것이다. 개신교 교회 안에서 교단을 넘어 혐오에 대한 현대적 ‘신 교리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¹⁾ 이처럼 혐오현상과 관련되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교단적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는 기저에 종교적·도덕적 순결주의가 있다. 기독교 윤리학자 자끄 엘뤼(Jacques Ellul)은 『뒤틀러진 기독교』에서 제도화된 교회가 사랑보다 법과 도덕으로 굳어버린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엘뤼의 교회사 연구에 의하면 역사의 변화 가운데 교회는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투사가 되려고 가난한 자의 주이자 사랑 안에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구세주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그만두었다.²⁾ 교회가 법과 도덕의 수호자 되기를 자처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는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엘뤼의 교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다.

1) 김진호, “개신교 총회정치의 민낯” 『제3시대』 117 (2017), 2-4, 예장통합은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그리고 대학 등 산하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으며, 신학대학입학까지 금한다’는 반동성애 조치를 총회에서 결의했다. 예장통합의 경우 ‘동성애자는 물론이고 동성애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포함한 일체의 옹호행위를 한 이들을 면직교가 출교시킨다’는 강경안을 총회에서 결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진호는 개신교 목사들이 신자들의 생각을 담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을 과잉대표하면서 형성된 극우적 보수대연합의 논리를 비판하였다.

2) Jacques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박동열·이상민 역, 『뒤틀러진 기독교』 (대전: 대장간, 2012), 155.

한국 교회가 보이는 도덕적 순결주의는 동성애혐오에 대한 보편적 거부감에 기대어 더 율법적 엄격함을 견지했다.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혐오와 수치심』 2장에서 혐오의 핵심을 오염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역겨운 거부반응으로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입 속의 침은 무감각하지만 컵 속의 침 뱉은 음료를 마시면 혐오감을 느끼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혐오는 문제가 있는 물질이 자신의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길 때 생긴다.³⁾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은 기독교 연합의 창시자로서 1988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로버트슨은 정치 후원금을 모으며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방에 피를 뿌려 사람들을 에이즈에 감염시키려 하고, 목사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 한다는 혐오표현을 하였다.⁴⁾ 너스바움의 혐오 개념이 교회 안에서 적용된 일례일 것이다. 그것은 개신교 교회가 동성애를 불순함과 비정상적의 수위에서 즉 혐오의 수준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너스바움이 지적 하듯이 혐오는 자연적 거부반응이 아니다. 감정은 분별없는 정서적 격앙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질서에 내포된 가치와 목적에 맞게 조율된 지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각 개인의 기질적 문제인 것 같이 보이는 혐오 속에 공적 규제와 통제 시스템이 은폐되어 있다. 너스바움의 논리를 빌리면 한국 개신교 교회는 혐오 현상을 신앙적 타락의 문제로 삼으면서 공교회적 규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가 경건과 순결을 위해 구약의 율법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사랑보다 법과 도덕을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인 것은 복음적 차원에서도 문제라

3) Martha C.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서울: 민음사, 2017), 168.

4) Richard Dawkins,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파주: 김영사, 2012), 441.

5) Martha C.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77.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덕적 순결을 강조하는 개신교 교회가 ‘다름’을 사회질서의 위협으로 받아들인 후 혐오로 대응한 것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다름’이 경제적 논리와 연관되어 있는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난민 신청자들을 향하여 ‘가짜 난민이다’ 혹은 ‘이슬람교도다’라는 배제의 원리가 붙여졌다. ‘가짜 난민이다’라는 혐오표현은 예멘 난민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유포되었다.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난 이들은 불관용적 혐오 대상이 된 것이다. ‘예멘 난민은 이슬람교도다’는 규정적 말 역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편승한 한국 개신교 교회가 덧붙인 예멘 난민의 거부 이유이다. 소수자를 향한 한국개신교 교회의 배타적 태도는 교회가 혐오의 확장자 역할을 자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한국 사회의 개신교인들이 혐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경제적 요인으로 접근할 필요를 느꼈다. 동시에 혐오에 대응하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결정 안에 개신교 경제윤리의 영향이 있기는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양적 조사를 통해 혐오와 기독교 윤리의 상관성을 객관적으로 밝혀 ‘다름’이 허구적 두려움으로 혐오로 인식될 이유가 없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한국적 혐오현상에 대한 기독교 윤리 안팎의 정치-경제적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적 혐오현상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의 선행연구

2014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라는 말은 지금과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혐오는 중대한 사회이슈가 되었고, 기독교는 혐오의 주체로 논쟁의 일선으로 나섰다. 문제는 처음부터 혐오

가 가학의 정치적 도구였다는 점이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인종차별적 언어를 ‘얼굴에 따귀를 맞는 것과 같은 일’에 비유하며 차별의 대상에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혐오발언이라 보았다. 혐오발언을 통해 절대적 권력을 전유한다. 혐오발언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혐오발언을 생산한다고 본 것이다.’⁶⁾ 차별적 언어가 몸의 실존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발언이 국민들 가운데 통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이것을 비준하였기 때문이라고 버틀러는 설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 교회가 혐오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정치권력과의 유착 문제로 읽어야 할 것이다. 구형찬은 한국사회의 혐오현상과 종교 사이의 상호연계 내지는 서로 얽힘에 대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⁷⁾ 예를 들어 동성애자와 반미-종북세력은 동질의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반공-애국주의 프레임이 덧씌워지면서 동성애자와 반미-종북세력은 동일 집단화 되었다. 보수 계신교회는 혐오와 반미-종북을 덧씌우는 일을 수행하였다. 구형찬의 주장과 같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현상이 개신교 내의 신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통념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융합된 것이다.⁸⁾

2018년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는 혐오의 주체자들을 마주하고 이지성은 기독교 우파 단체들이 한국적 혐오대상 ‘종북계이’를 탄생시켰다고 말한다.⁹⁾ 이지성이 혐오를 정치권력의 이념대립으로 보았다. 사실 1980년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사용된 주체사상과와 관련 있는 ‘종북혐오’와 2000년

6)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유민석 역, 『혐오발언』(서울: 알렘, 2016), 15.

7) 구형찬, “혐오-종교 공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종교문화연구』제29호 (2017), 12.

8) 위의 논문, 10.

9) 이지성, “혐오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제42집 (2018), 226.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 관련 있는 ‘게이혐오’가 합체하여 나타난 말이 ‘종북게이’이다. 우파적 개신교 단체들이 혐오대상을 지정하고 ‘종북’의 이름을 붙이며 스스로 사회적 권력을 쟁취한 것이다.¹⁰⁾

혐오현상이 이념 논쟁으로 다루어질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서 도덕과 법, 제도, 그리고 사회적 감정으로서의 ‘정동’(情動, affect)이다. 사회질서로서의 도덕과 법 그리고 ‘정동’은 혐오라는 배를 뜨게 하는 거대한 물과 같고 혐오하는 주체 자신의 당당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근식은 덕의 공동체적 입장에서 혐오현상에 접근하여 덕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근식에 따르면 혐오문화의 확산에 현대 자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고, 가부장적 제도와 감정의 정치가 있으며, 이것들 사이의 결탁이 있다. 그래서 이근식은 자본주의와 소유에서 벗어난 덕의 공동체 그리고 언어의 훈련 공동체로 응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기독교 윤리 안에서 혐오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적 혐오현상은 우파의 정치-경제와 기독교의 보수적 신앙이 연합된 양상을 띠고 있다.

2. 한국적 혐오현상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독교 밖의 연구들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혐오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혐오는 권력투쟁의 특성을 보이고,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적 순결성의 보존이라는 외피를 지니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교회 밖에서 혐오현상에 대한

10) 위의 논문, 229.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또 다른 ‘종북게이’라는 대상에 투사된 극우 개신교 집단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반대되는 것을 불쾌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이 고수하는 가치만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망상’의 양상이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11) 이근식, “혐오와 덕의 공동체: 스텐리 하우어스의 덕윤리를 통한 혐오문화의 기독교윤리적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 (2017), 131.

인식은 자본주의 제도의 문제로 혹은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김영미는 현대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여성혐오에 주목하였다. 김영미는 혐오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남성성의 과잉보상에 주목하였다. 남성성의 과잉이 곧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혐오의 뿌리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거나 ‘여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자에게 무임승차한다’는 것과 같은 여성혐오적 표현이 근거 없는 ‘정동’의 경제학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영미에 의하면 여성혐오는 남성이 지닌 남성성 과잉보상에 관한 일련의 사회심리학적 행동 패턴이다.¹²⁾ 한국 사회에서 남성성의 과잉보상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급격히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다. 노동시장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면서 남성들이 공적 생산의 공간에서 밀려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젠더차별을 승인하고 여성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옹호하였다.¹³⁾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은 허구이다.¹⁴⁾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의 사회진출에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성이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저임금 단순 서비스직에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이 지닌 두려움의 본질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를 실행하는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 김영미의 말처럼 ‘가해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 피해자들의 분노는 쉽게 피해자 경쟁으

12) 김영미, “노동시장 피해자 경쟁과 여성혐오”, 『황해문학』 2017년 12월호, 39.

13) 위의 글, 40.

14) 위의 글, 47. 좋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고임금100대 기업에서 여성비율이 20%에 불과하고 여성임원 비율이 1%도 안 된다. 이것으로 남성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근거로 한 혐오와 두려움이 근거 없다고 할 수 있다.

로 전환된다.”¹⁵⁾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피해자인 청년 남성이 또 다른 피해자인 여성과 경쟁하며 자신의 실업과 일자리 불안정 원인을 여성의 사회진출에서 찾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성들의 심리적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혐오의 기저에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가 내재되어 있다.

백승대와 안도현은 혐오의 기저에 성공하지 못한 심리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백승대와 안도현은 남자 고등학생들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남학생이 지닌 성공에 대한 심리적 위축 속에 남성성의 위기가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심리가 여성혐오에 영향을 준 것이다.¹⁶⁾ 남성성의 과잉보상의 또 다른 연구를 하였던 이현재는 남성성의 위기를 근대 도시 문화의 해체로 설명하였다. 근대 도시가 형성될 때 남성은 공적 시장에 여성은 사적 가정에 배치되었다. 이분법적 삶의 방식이 근대 산업화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감정 구조의 핵심이다. 산업화된 도시 안에서 남과 여의 이분법적 삶의 방식이 여성혐오 낳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산업화된 자본주의적 근대 도시경제가 해체되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원칙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현대 도시에서 여성을 공적 시장 안으로 진입시켰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남성은 이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심리적 위기를 혐오로 전환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남성들과 경쟁 뿐 아니라 여성들과의 경쟁에서도 위기

15) 위의 글, 48.

16) 백승대·안도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56권 1호 (2017), 229.

의식을 느낀 남성들은 부상하는 여성주체나 여성운동에 반발하게 되고 이를 여성혐오의 감정으로 표출하게 되었다”¹⁷⁾

한국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도시의 형성 원리였던 위계적 젠더의 이분법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의해 바뀌었다.¹⁸⁾ 교회 밖의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의 경제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혐오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실체,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을 보지 못할 경우 남성은 엉뚱한 사회적 약자를 혐오 대상으로 삼아 희생시키며 구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¹⁹⁾

III. 혐오와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계에 대한 의식조사

1. 자료

선행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혐오현상 기저에 신자유주의 정

17) 이현재, “도시적 감정으로서의 여성 혐오와 도시적 젠더정의의 토대로서의 공감의 가능성 모색”, 『한국여성철학』 제25집 (2016). 40.

18) 위의 논문, 41-42. 한국 사회에서 2014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49.5% 증가했고, 여학생의 대학진학은 74.6%로 남학생의 67.6%보다 높았다. 여성이 남성의 공적인 일에 들어가면서 근대 도시의 형성원리로서 위계적 젠더 이분법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질수록 남성들이 이 위기감을 여성혐오로 대치하고 일이 일어났다.

19) René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é*, 김진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2010), 391. 르네 지라르는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행해졌던 만장일치의 폭력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들은 제3자를 희생시킴으로써만 서로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폭력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희생물에 대한 만장일치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희생물에 살인죄와 더러움 그리고 전염병의 원인을 덮어씌워 희생시킴으로써 예전에 향유했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타자를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추방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순결하고 성스럽게 만들어 구질서를 구원하는 것이 희생의 메커니즘이다. 혐오는 전형적인 희생의 메커니즘과 동일한 작동원리를 보이고 있다.

치경제학이 숨어있음을 보았다. 기독교 내의 연구에선 혐오와 경제 윤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인들이 혐오현상에 보인 태도와 의식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 숨어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수행하고, 개신교 경제윤리가 ‘한국적 혐오’ 현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2월 26일~2019년 1월 1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얻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적 혐오현상의 도덕적 계보학 연구-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모 집단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이고 표본의 크기,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000명의 표본은 2018년 1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이후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를 하였고 60대 이상은 대면면접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가운데 개신교인들의 경제윤리와 혐오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하였다.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개신교인(327명)의 응답만을 타겟팅하여 조사하였다.

2. 측정

1) 독립변수: 개신교인의 경제의식과 태도

개신교인들의 경제 의식과 태도는 본 연구자들이 직접 작성한 6문항들을 활용해 조사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었다.

본 연구 목표를 위해 1요인을 ‘상생윤리’로 명명하였고, 1요인은 4개의 물음으로 묶였다. 4개의 문항을 보면,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 상속 등과 같은 불로(不勞)소득이 많은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가 위협 받는다’,이다. 제2요인으로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와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가 연관 있는 물음으로 묶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를 ‘개신교 경제윤리’로 명명하였고,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를 ‘신자유주의 경제윤리’라 칭하였다.

경제윤리에 대해 KMO 검증 결과 0.737이 나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보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나 연구모형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측면에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는 2요인의 문항은 둘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 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3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38.117
	자유도	21
	유의확률	.000

〈표 2〉

회전된 성분행렬 ^a		
	성분	
	1	2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788	.100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768	.084
국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734	.006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 상속 등과 같은 불로(不勞) 소득이 많은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가 위협받는다	.635	.068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119	.863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311	.718

2) 종속변수: 여성혐오, 동성애혐오, 노인혐오, 난민혐오

본 연구에서 여성혐오, 동성애혐오, 노인혐오, 난민혐오를 ‘한국적 혐오’라 명명 하였고 각각의 혐오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연구자들이 직접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5)’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혐오가 낮은 것으로 조사했으며 필요한 경우 역변수하여 방향 조절을 하였다. 한국적 혐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 결과 여성혐오의 Cronbach’s α 값은 0.712, 성소수자혐오의 Cronbach’s α 값은 0.801, 노인혐오의 Cronbach’s α 값은 0.585, 난민혐오의 Cronbach’s α 값은 0.747로 나타나 노인혐오를 제외한 모든 혐오에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석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경제적 토대, 즉 학력, 소득, 직업, 정치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간 ANOVA 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주요 경제요인들과 혐오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윤리와 ‘한국적 혐오’ 사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됐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이다. 이 가운데 개신교인 327명의 설문내용을 추출하여 개신교인의 의식조사를 위한 자료로 삼았고, 이 데이터를 통해 경제윤리와 혐오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1. 개신교인의 경제윤리에 대한 태도

〈표 3〉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질문으로서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 개신교인의 대졸과 고졸 사이의 응답은 윤리적 판단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졸자(평균 3.83) 보다 더 중·고졸자(평균 4.17)가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개신교적 경제윤리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중졸자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 사이의 간격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력자일수록 근면과 성실이 부를 보장한다는 윤리적 덕목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한국사회의 경제구조 변화 비용을 개인의 노력과

성취로 메꾸어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표 3〉 학력에 따른 개신교인의 경제윤리 의식 수준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상생윤리	중졸	50	4.16	0.53	0.975	0.405
	고졸	65	4.30	0.47		
	대졸	169	4.18	0.56		
	대학원 이상	43	4.15	0.75		
개신교 경제윤리	중졸	50	4.00	0.99	11.976	0.000
	고졸	65	3.43	1.17		
	대졸	169	2.93	1.12		
	대학원 이상	43	3.14	1.37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중졸	50	4.10	0.71	3.188	0.024*
	고졸	65	4.17	0.84		
	대졸	169	3.83	0.89		
	대학원 이상	43	3.86	0.91		

*p<0.05 **p<0.01 ***p<0.001

〈표 3〉에서 “근명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신교 경제윤리 인식이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2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과 600만 원 이상으로 받는 사람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소득에 따라 상생윤리 요인- ‘국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 상속 등과 같은 불로소득이 많은 사회에서는 사회정의가 위협받는다’-을 구분한 결과 응답자는 5 점 척도의 동의 가운데 평균 4.18이라는 높은 윤리의식을 보였다. 반면

개신교 경제윤리 물음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는 상생윤리와 비교할 때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응답자는 ‘근면 성실한 태도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물음에 평균 2.9를 보이며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인식한 태도의 반영이다.

〈표 4〉 소득에 따른 차이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상생윤리	200미만	71	4.21	0.52	1.650	0.178
	200-400미만	104	4.28	0.52		
	400-600미만	89	4.13	0.61		
	600 이상	63	4.12	0.63		
개신교 경제윤리	200 미만	71	3.66	1.16	4.968	0.002**
	200-400미만	104	3.19	1.22		
	400-600미만	89	3.13	1.14		
	600 이상	63	2.90	1.20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200미만	71	4.03	0.76	1.836	0.140
	200-400미만	104	4.05	0.87		
	400-600미만	89	3.88	0.85		
	600 이상	63	3.76	0.98		

*p<0.05 **p<0.01 ***p<0.001

이번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윤리의 물음에 대해 직업에 따른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유의미한 결과가 집단-간 ANOVA 분석에서 나타났다. 사무직 그룹보다 서비스/판매직 그룹에서 ‘경제적 자유의 완전 보장’이란 신자유주의 원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듯이 농수산/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그룹은 평균 4.0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주

었다. 한마디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직업에서 완전한 경제적 자유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무직보다 단순 노무직이 노동의 유연성에서 오는 위기를 덜 받고 있어 경제적 자유에 호의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전문직	54	3.9259	0.98770	2.409	0.027*
	사무직	83	3.7831	0.87021		
	서비스/판매직	52	4.3269	0.64841		
	농수산/단순노무	24	4.0000	0.88465		
	학생	18	3.7778	0.94281		
	무직	17	3.9412	0.82694		
	기타	79	3.8861	0.84713		

*p<0.05 **p<0.01 ***p<0.001

정치적 분류에선 계층 간에 분명한 의식의 차이를 〈표 5〉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보수라고 응답한 개신교인일수록 상생의 경제윤리에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대답을 하며 함께 사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신교 경제윤리 ‘근면과 성실이 가난을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경제적 자유는 보존되어야 한다’에도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반면 자신을 진보로 응답한 개신교인들은 개신교 경제윤리의 요인들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진보적 정치 신념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가난의 결과를 개인의 게으름과 부도덕함에서 찾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표 6〉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상생윤리	보수	113	4.18	0.55	4.536	0.011*
	중도	101	4.08	0.60		
	진보	113	4.31	0.54		
개신교 경제윤리	보수	113	3.49	1.19	6.829	0.001***
	중도	101	3.28	1.22		
	진보	113	2.91	1.15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보수	113	4.13	0.83	4.465	0.012*
	중도	101	3.88	0.77		
	진보	113	3.81	0.96		

*p<0.05 **p<0.01 ***p<0.001

2. 종교적 영향력과 ‘개신교 경제윤리’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도덕, 신념, 가치관에 미친 종교의 영향력’, ‘개인생활에 미친 종교의 중요도’, ‘근면 성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함’, ‘경제적 자유의 보장’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1. 귀하는 자신의 도덕이나 신념, 가치관에 귀하의 종교가 영향을 얼마나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귀하의 개인 생활에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702**	1		
3.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248**	.254**	1	
4.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109*	0.064	.261**	1

*p<0.05 **p<0.01 ***p<0.001

그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도덕, 신념, 가치관에 미친 종교의 영향력’이 ‘개인의 생활에 미친 종교의 중요도($r=.702, p<0.01$)’와 ‘근면 성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함($r=.248, p<0.01$)’, ‘경제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r=.109, p<0.05$)’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생활에 미친 종교의 중요도’와 ‘근면 성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함($r=.254, p<0.01$)’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신교 경제윤리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인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r=.261, p<0.01$)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이미 오래전 언급한 것과 같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신교인의 의식에 있어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종교의 영향과 경제윤리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종교가 도덕, 신념,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에 매우 그렇다 응답한 사람일수록 ‘개인의 생활에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개신교인에게 나타났다. 개신교가 신도 개인의 감성과 삶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다.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 경건과 불경함, 순결함과 불결함 등의 도덕 감정이 종교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종교의 도덕에 대한 영향력과 삶의 세계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일과 경제관념에서도 유지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 오히려 상관계수 $r=0.248$ 가 $r=0.109$ 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상의 삶에 미친 종교의 중요 상관계수가 $r=0.702$ 인 것을 감안하면 종교가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이 세속적 삶과 신앙적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이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인들의 경제에 대한 의식과 그들의 삶의 조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예배, 설교, 기도와 성경 등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종교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이나 가치판단의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건강한 종교에서 보이는 공적 도덕 감정이다. 종교 감정과 도덕 감정이 사회질서와 명령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상생윤리에 개신교인 모두가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도 ‘다름’을 사회적 통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이다. 학력, 급여수준에 따라 조사된 <표 7>은 종교 감정과 도덕 감정으로서 혹은 사회질서로서 상생윤리에 대한 모두의 높은 동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직업,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간 ANOVA분석을 하였을 때 종교 감정과 도덕 감정을 내포한 상생윤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개신교 경제윤리와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일어났다. 경제라는 구체성 앞에서 개신교인들이 종교나 도덕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3. 개신교인의 경제윤리와 한국적 혐오현상에 대한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1) 동성애 혐오와 경제윤리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아래의 <표 8>은 개신교인들이 보인 경제 윤리적 요인들과 한국적 혐오 현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변수로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여성혐오, 페미니스트 지지, 동성애 혐오, 동성애 지지, 혐오표현의 자유, 노인혐오, 노인지원제도, 난

민혐오, 난민지원 등을 요인분석을 통해 설정하였다.

먼저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는 ‘상생윤리’로 명명한 변수들이다.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의식을 드러내는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신교인의 경제윤리 의식을 드러내는 독립변수이다. 이러한 독립변수에 대하여

- 여성혐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정적이다, 여성은 현실을 고려치 않고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한다, 페미니스트는 공격적이다,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한다.
- 성소수자혐오: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은 가족질서를 위협한다, 동성애는 질병으로서 치료를 통해 이성애로 바뀔 수 있다, 나는 성소수자들이 자기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는 반대 한다.
- 혐오표현의 자유²⁰⁾: 성소수자 축제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동성애 반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표현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직접적 차별이 아니다.
- 노인혐오: 노인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들이다,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20)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서울: 어크로스, 2018), 26. 혐오표현 개념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이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개념으로서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가 있다. 이것은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의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이다,

폐지해야 한다.

- 난민혐오: 난민 신청자 중에 가짜 난민이 많다, 난민이 증가하면 범죄나 테러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을 종속변수로써 한국적 혐오현상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경제윤리)와 종속변수(한국적 혐오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 지지는 상생의 경제윤리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생 윤리'에 동의가 낮을수록 페미니스트 지지에 대한 동의도는 높아진다.

동성애 혐오는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r=0.182$, $p<0.01$)'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동의할수록 동성애혐오도 증가했다. 동일하게 '동성애 지지' 역시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r=-0.123$,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의할 것은 '경제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과 관련해서 동성애 혐오와 동성애 지지의 공존이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동성애혐오가 동성애지지보다 더 높은 상관계수를 지니고 있어 동성애 혐오가 조금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의 상관계수($r=-0.176$, $p<0.01$)로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수록 혐오표현의 지지도는 줄어든다.

난민혐오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윤리는 상관계수($r=-0.129$, $p<0.01$) 부(-)^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개신교 경제윤리는 상관계수($r=0.145$, $p<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윤리보다 기독교적 경제윤리에 더 심한 경계심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끝으로 ‘난민지원’과 관련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에 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난민지원’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근로 의식이 높을수록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윤리’변수는 자유에 대한 요청이 거셀수록 동성애혐오, 혐오표현의 강도도 거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혐오에 대해서는 자유를 강하게 요청할수록 난민혐오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개신교 경제윤리’변수에서 근면 성실을 강조할수록 노인혐오 현상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난민혐오 현상은 강해졌다. 난민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어서일 것이다.

〈표 8〉 한국적 혐오와 경제윤리 사이의 상관관계

변수	1 (여성 혐오)	2	3 (동성 애 혐오)	4	5 혐오 표현	6 노인 혐오	7	8 난민 혐오	9	10	11	12	13	14
(역리코드) 여성혐오	1													
페미니스트 지 지	.295**	1												
(역리코드) 동성애 혐오	.204**	0.105	1											
동성애 지지	0.103	.306**	.468**	1										
(역리코드) 혐오 표현의 자유	0.075	0.060	.322**	.219**	1									
(역리코드) 노인혐오	.215**	-0.025	-0.004	-0.026	0.044	1								
노인지원	0.032	.316**	-.141*	.130*	-0.039	.235**	1							
(역리코드) 난민혐오	-.156**	0.037	-.193**	-.149**	-.197**	-.157**	0.052	1						
난민지원	-0.004	.182**	.157**	.343**	0.064	.178**	.264**	-.293**	1					

(역리코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	-0.021	-.224**	0.021	-.124*	0.092	-.140*	-.340**	-.110*	-.219**	1							
(역리코드) 국가는 빈부격 차를 해소하는 복지제도를 시 행해야 한다	0.015	-.192**	-0.034	-.155**	0.007	-0.066	-.201**	-0.063	-.272**	.445**	1						
(역리코드)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 어야 한다	-0.028	-0.025	.182**	.123*	.176**	-0.084	-0.108	-.129*	-0.080	.159**	.261**	1					
(역리코드)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0.089	0.070	0.108	-0.005	-0.065	-.139*	-0.017	.145**	-.168**	.124*	.132*	.359**	1				
(역리코드) 대기업과 중소 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 해야 한다	0.042	-.270**	0.021	-.132*	0.045	-0.002	-.243**	-0.060	-.188**	.385**	.271**	.152**	0.011	1			

2) 동성애 혐오와 경제윤리 사이의 회귀분석

(1) 동성애 혐오에 대한 경제윤리의 영향관계

위의 <표 8>에서 한국적 혐오현상들과 개신교 경제윤리,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과 관계를 확인해 보자.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의 독립 변수들이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2.762, p값이 0.018로 나타났다. p값이 0.05보다 작은 0.018이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 인문학적 조사가 대개 그러하듯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1%의 미약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0으로 2에 근접한 값이어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9〉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동성애 혐오	(상수)	2.442	0.436		5.600	0.000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0.198	0.066	0.184	3.007**	0.003	1.225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0.029	0.046	0.037	0.631	0.528	1.162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0.053	0.095	0.037	0.554	0.580	1.209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0.010	0.097	-0.007	-0.102	0.919	1.355
	국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0.100	0.074	-0.088	-1.343	0.180	1.291
F=2.762 (p< 0.018), R ² = 0.041 , 수정된 R ² =0.026 , D_W=1.930							

*p<0.05 **p<0.01 ***p<0.0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X축 $\beta= 0.184$, p<0.01)만이 동성애 혐오(Y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동성에 혐오감정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2) 노인혐오에 대한 경제윤리의 영향관계

〈표 10〉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노인 혐오	(상수)	3.870	0.355		10.903	0.000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0.000	0.054	-0.001	-0.008	0.993	1.259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0.084	0.037	-0.133	-2.250*	0.025	1.172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0.122	0.077	0.105	1.581	0.115	1.490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0.195	0.079	-0.165	-2.467*	0.014	1.503
	국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0.044	0.061	-0.048	-0.731	0.465	1.424
F=2.993 (p< 0.023), R ² = 0.045 , 수정된 R ² =0.030 , D_W=1.697							

*p<0.05 **p<0.01 ***p<0.001

위의 다섯 개 독립변수들이 노인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2.993, p값이 0,023로 p값이 0.05보다 작다. 따라서 회귀모형에 적합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45%로 미약하다. 독립성 판별을 위한 Durbin-Watson 통계량 역시 1.697로 2에 근접

한 값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만족하고 있다.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다섯 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변수에서 영향도 β 값 -0.165 , $p < 0.014$ 를 보였다. 독립변수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가 노인혐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X축)에 대해 높게 동의할수록 노인혐오 감정(Y축)은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것은 개신교인이 상생윤리 속에서 노인혐오를 하지 않는다는 근거이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신교 경제윤리 변수가 미세한 영향도 β 값 -0.133 와 p 값 0.025 를 가지고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X축 개신교 경제윤리에 높게 동의하는 개신교인일수록 Y축 노인혐오에 동의하지 않는 의식 상태이다. 한마디로 개신교인은 노인혐오는 하지 않는다.

(3) 난민혐오에 대한 경제윤리의 영향 관계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빈부 격차를 위하여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의 독립변수들이 난민혐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4.404, p값이 0,001으로 나타났다. p값이 0.05보다 작은 0.000이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4%로 미약한 정도이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60로 2에 근접한 값이어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표 11〉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난민 혐오	(상수)	3.023	0.357		8.468	0.000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0.171	0.054	-0.192	-3.172**	0.002	1.259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0.141	0.038	0.220	3.762***	0.000	1.172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0.005	0.078	-0.004	-0.062	0.951	1.490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0.103	0.080	-0.086	-1.296	0.196	1.503
	국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0.029	0.061	0.031	0.484	0.628	1.424
	F=4.404 (p< 0.01), R ² = 0.064 , 수정된 R ² =0.050 , D_W=1.760						

*p<0.05 **p<0.01 ***p<0.0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의 영향도 β 값은 -0.192, p<0.02이다. 따라서 난민 혐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X축)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난민혐오 감정(Y축)은 낮아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의 영향도 β 값은 0.220, $p < 0.001$ 로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X축 개신교 경제윤리에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Y축 난민혐오가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의 상생윤리에 해당하는 물음과 난민혐오 사이에 영향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임금 외국 노동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에 호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난민의 유입을 이익으로 본 것이 드러났다. 반면 개신교 경제윤리적 입장에서 보면 난민은 그저 저임금 노동자만은 아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다. 교회가 이 이미지를 난민에 투사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난민에 대하여 인권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잠재적 신앙의 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V. 나가는 말

‘한국적 혐오’란 무엇일까? 혐오의 대상을 보면 ‘한국적 혐오’라 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서구 사회에 이미 존재했던 혐오의 대상과 한국에서 지정된 혐오의 대상이 다르다.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여성, 유대인, 공산주의자를 순수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독일 남성에게 대비하여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다.²¹⁾ 독일의 엘리트 군인들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암세포, 종양, 세균, 균상 증식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을 탈 인간화시킨 것이다. 독일에서 일어난 혐오의 기저에는 민족이 있다. 현대 미국의 경우, 남성 동성애자와 이슬람

21) Martha C.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203.

교도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²²⁾ 미국이란 사회가 청교도적 특성을 지니고 9.11이란 사건을 경험하였기에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른바 ‘재특회’란 모임은 재일한국인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도 내국인 우선이라는 민족주의가 혐오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집단을 배척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에 따라 혐오의 대상이 각 사회에서 다르게 설정된 것이다. ‘혐오의 대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 한다’는 밀러의 명제 대로다. 한국사회 안에서 ‘한국적 혐오’라 할 수 있는 대상은 여성,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중북세력 등이다. 개신교의 정치화된 반공 이념과 안보적 사고로 혐오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적 혐오’의 또 다른 특성은 도덕주의적 개신교가 주장하는 ‘안보와 질서’이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신 교리화’ 작업을 수행한 한국 개신교는 교단적 차원에서 성소수자와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를 활성화하고 있다. 성소수자와 이슬람교도들이 규범적으로 한국 사회의 중산층보다 열등하고 더럽고 뒤쳐진 존재이기에 그리고 기성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다.²³⁾ 김보영의 말처럼 신자유주의 시대 혐오는 일상과 만나는 내부와 주변의 타자들을 그 표적으로 삼는다.²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혐오의 정동경제학은 주체의 절대적 우월감보다 불안과 위태로움의 반영이다. 다시 말해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는 일상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비혼과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거나 일자리를 빼앗고 성도덕을 무너뜨려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집단이기에 혐오하는 것이다.

22) 위의 글, 213.

23) 김보영,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정향: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위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2018), 5.

24) 위의 논문, 25.

결과적으로 ‘한국적 혐오’란 기독교적 도덕 감정에 기초하여 여성, 동성애자, 이주 노동자, 종북세력에 더러움, 역겨움, 불결함의 이미지를 덧입혀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동시에 피터슨(David Peterson)의 주장처럼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나 자신의 안보’의 욕구에서 일어난 ‘정동’이 혐오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자와 이주 노동자는 내 일 자리를 빼앗고 내 가정의 재생산 구조를 해체하려 내 앞에서 있는 부정확한 타자이다. ‘한국적 혐오’와 차별화될 수 없는 개신교인의 혐오는 성적 타락과 더러움에 대한 거부감이고 동시에 가족 구성과 자녀 양육, 자본주의 재생산이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혐오’ 현상에 대한 개신교인의 의식을 정리하면, 첫째로 한국 개신교 교인의 의식과 관련하여, 개신교인의 절반만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덕목을 믿는다. 개신교인은 42%가 이 물음에 긍정의 대답하였다. 개신교인 가운데 고학력자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개신교 경제윤리의 ‘근면 성실과 부’의 필연성에 회의적이다. 이것은 경쟁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도전으로 부를 창출한다는 청교도적 가르침이 교회에서 교육되지 않았거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사회에서 개신교 경제윤리가 유효하지 않다고 인식해서 일 수 있다.

둘째로 한국 개신교인은 종교적 영향력이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종교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종교의 중요 가르침 순위는 가장 중요한 내세관(36%)으로부터 이웃사랑과 자비, 가족애, 생명존중, 근면 성실, 평화공존, 복으로 순으로 정해졌다. 복(1.8%)이나 근면 성실(5.5%)은 중간 아래의 서열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도가 떨어졌다. 생활 세계의 경제윤리에 대한 의식이 너무 떨어진 것이다.²⁵⁾ 이웃사랑을 담은 상생윤리와 비교할 때 개신교 경제윤리의 평균값

25) Martha C. Nussbaum, 강동혁 역, 『혐오에서 인류애로-성적 지향과 헌법』(서울: 뿌리

역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로 다중회귀분석에서 개신교가 분명히 성소수자혐오와 난민혐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소수자혐오의 물음 가운데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에 33.3%의 긍정응답이 있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은 가족질서를 위협한다’에 긍정응답한 사람은 54.4%에 해당한다. 이 두 질문의 비교만으로도 성소수자의 성 문란보다 가족붕괴의 위험이 더 직접적 성소수자 반대 이유이다. 난민혐오에 영향을 준 것과 관련해서도 ‘난민 신청자 중에 가짜 난민이 많다’고 긍정 응답한 사람이 48%에 이른다. ‘난민이 증가하면 범죄나 테러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8.9%에 이른다. 난민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운 것이고 안경을 해할까 두려운 것이다. 혐오의 정동경제학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스펙을 쌓아도 안 되는 삶의 불안이 타인에 대한 혐오로 나타났다는 기존의 연구에 동의하면서 한국 개신교 쪽의 정치-경제학적 의도가 ‘한국적 혐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객관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의도에 맞게 충분히 사회과학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여성혐오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것 때문에 경제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여성혐오의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지 못했다. 모델을 변화시킨다면 더 타당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와 이파리, 2016). 204.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동을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금지의 근거가 종교경전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경전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스바움은 동성결혼 반대 근거를 경전에서 찾는 것의 곤란함을 이 예를 통해 지적한다. 시민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기독교윤리는 시민법 앞에서 무력화 된다. 경제적 결정도 그러하다.

참고문헌

- 구형찬. “혐오-종교 공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종교문화연구』. 제29호 (2017), 1-24.
- 김보명.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정향: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위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2018), 99-138.
- 김진호. “개신교 총회정치에 민낯.” 『제3시대』. 제117호(2017/9), 2-4.
- 김영미. “노동시장 피해자 경쟁과 여성혐오.” 『황해문학』. 2017년 12월호, 36-51.
- 백승대 · 안도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56권 1호 (2017), 205-235.
- 이근식. “혐오와 덕의 공동체: 스탠리 하우어스의 덕윤리를 통한 혐오문화의 기독교윤리적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2017), 111-140.
- 이지성. “혐오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2018). 211-240.
- 이현재. “도시적 감정으로서의 여성 혐오와 도시적 젠더정의의 토대로서의 공감의 가능성 모색.” 『한국여성철학』. 제 25권, (2016), 35-64.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2018.
- 마사 너스바움/강동혁 역. 『혐오에서 인류애로-성적 지향과 헌법』. 서울:뿌리와 이파리, 2016.
- 르네 지라르/김진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2010.
- 자끄 엘릴/박동열 · 이상민 역. 『뒤틀러진 기독교』. 대전: 대장간, 2012.
- 주디스 버틀러/유민석 역. 『혐오발언』. 서울: 알렙, 2016.
- 마사 너스바움/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7.
- 리차드 도킨슨/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파주: 김영사, 2012.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01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2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인들이 혐오현상에 보인 태도와 의식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 숨어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수행하고, 기독교 경제윤리가 한국적 혐오현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개신교인들의 혐오에 대한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리서치가 2018년 12월 26일~2019년 1월 14일에 조사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고용의 불안과 위태로움에 처한 잠재적 피해자로서 개신교인들은 난민과 동성애자를 향해 배제와 적대의 혐오가 있음을 보였다. 반면 경제적 이유로 노인혐오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신교인들이 혐오에 대해 보인 태도와 의식의 특성은 동성애자와 난민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개신교인이 모든 혐오의 주체가 아니라 특화된 동성애와 난민에 대해 혐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청교도적 경제윤리를 올바르게 교육함으로써 동성애 혐오와 난민 혐오 현상이 완화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한국적 혐오, 성소수자 혐오, 난민 혐오, 신 교리화, 정동의 경제학
